

한전, 캐나다 우라늄 정밀 탐사 합작사 계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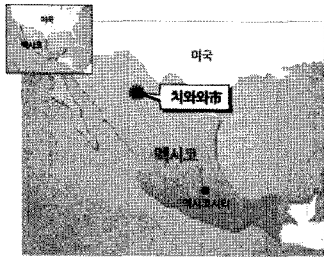


한국전력공사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현지 우라늄 탐사전문회사인 '피션'사와 우라늄 정밀탐사를 위한 합작투자 회사설립 및 탐사계약을 지난달 17일 체결했다.

한전은 지난 2008년 1월 '피션'사와 기초탐사계약을 체결한 후 3년간의 탐사 기간 동안 총 1500만 달러를 투자해 총 97개 공의 시추를 통해 약 20개 공에서 우라늄을 다량 발견한 바 있다.

한전(20%), 한수원(15%), 한전연료(5%), (주)한화(5%), 그라비스(5%) 등 한전 컨소시엄은 해당 광구에서 발견된 우라늄의 지분 50%를 확보한 상태로 이번 계약으로 한전과 피션은 총 3000만 캐나다달러 투자비를 50%씩 부담해 총 180개공 66,000m 시추와 지물리 탐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전, 4억불 규모 멕시코 화력발전소 수주



한국전력공사는 지난달 4일 멕시코시티 북서부의 치와와주 엘치노 지역에 433MW급 가스복합 화력발전소를 짓는 4억2000만 달러(약 4912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 발전소의 사업권은 한전(56%)·삼성물산(34%)·멕시코 테친트(10%) 컨소시엄이 25년간 갖고, 운영과 유지 보수는 한전이 맡는다.

한수원, 경주 본사 사무실 개소식



한국수력원자력이 공기업 중 최초로 본사를 경주로 이전하고 본격적인 지방 사옥 시대를 여는 것을 기념하는 '경주 본사 사무실 개소식'을 지난 8월 5일 경주시 현지에서 개최했다.

정부 부처 인사와 김종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한수원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개소식은 한수원 경주본사 이전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정수성 국회의원,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최양식 경주시장의 환영사와 김종신 사장의 인사말, 현판 제막식, 테이프 컷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한수원은 본사 사옥 건립을 위해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일대 약 16만㎡의 땅을 대부분 매입한 상태이며, 이달 말까지 설계를 발주하여 당초 약속한 2014년 9월까지 차질 없이 사옥을 완공할 예정이다.

신고리 1호기 최초 계통병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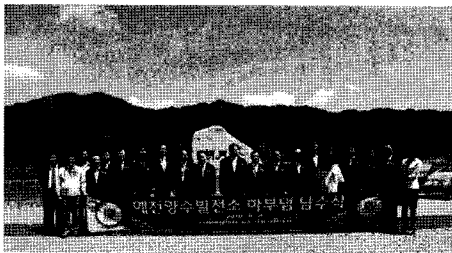


국내 21번째 원전으로 건설 중인 신고리 1호기가 지난 8월 4일 발전을 개시해 최초로 생산된 전기를 송전선로를 통해 일반 가정과 산업 현장에 내보내는 이른바 '계통병입'에 착수했다.

신고리 1호기는 1,000MW급 가압경수로형 원전으로 안전성과 유지보수성이 더욱 향상된 국내 최초의 개선형 한국표준형원전이다.

지난 2005년 5월 착공한 신고리 1호기는 2006년 6월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갔으며 원자로 및 터빈 발전기 설치에 이어 상온수압시험 및 고온기능시험 등의 시운전시험을 차질 없이 수행해 왔다. 또한 지난 5월 29일 최초 원전연료 장전과 7월 15일 초기 임계 진입 등 원자로 특성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바 있다.

남동발전, 예천양수발전소 담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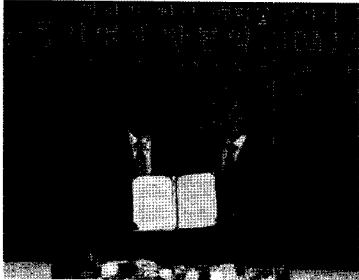
한국남동발전은 지난달 9일 예천양수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하부댐의 담수를 축하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또 이곳 저수지의 명칭을 담수 지역인 옛마을 송월리에서 따온 '송월호'로 이름 짓고 호명비 제막식을 함께 진행했다.

예천양수 하부댐은 높이 63m, 길이 535m, 저수용량 900만톤 규모로 지난해 9월 굴착을 시작해 올해 6월 축조를 완료하고 물을 채우기 시작했다. 예천양수발전소는 국내 최대용량 40만KW 규모의 지하발전소와 상부댐 마무리 공사를 거쳐 2011년 말 완공할 예정이다.

남동발전은 예천양수발전소를 건설하면서 국내 최초로 댐 본체를 복합단면으로 구성하고 각종 첨단 계측기를 설치하는 등 신기술·신공법을 도입했다.

이와 함께 예천양수발전소 유희부지를 활용해 20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와 600KW 규모의 소수력 발전소도 건설, 이곳을 세계적인 최첨단·친환경 발전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부발전, 필리핀에 수력발전소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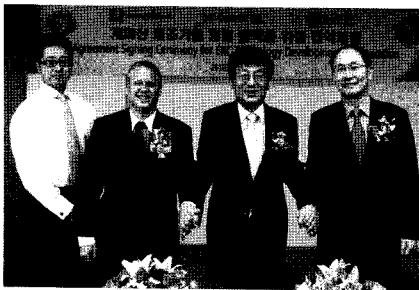


한국서부발전이 SK건설과 함께 지난달 3일 서울 웨라톤 워커히 호텔에서 '필리핀 카난 수력발전사업 공동사업개발협약'을 체결했다.

수력발전소는 강수량이 풍부하고 지형적으로 좋은 조건을 갖춘 필리핀 루손섬 케손주에 위치하게 된다. 방식은 유역 변경식으로 서부발전이 발전소 운전과 정비를 맡고, SK건설이 시공을 담당한다.

생산된 전력은 케손주 뿐만 아니라 수도 마닐라의 침두부하시에도 공급돼 전력난 해소를 할 예정이다.

남부발전, 탄소 이용 개미산 제조 기술 개발



한국남부발전은 지난달 10일 캐나다의 맨트라(Mantra)사, 국내 환경전문기업인 KC코트렐과 협약을 맺고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전기분해해 개미산을 제조하는 ERC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개미산은 개미에서 발견된 천연물질로 방부제와 염색제, 인공감미료 등 유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대체물질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제시장 규모는 10억달러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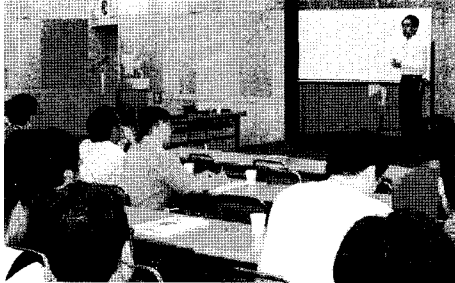
남부발전은 일단 맨트라가 보유하고 있는 ERC 시스템을 하동 화력발전소에 설치, 1년 간 기술 보완을 거친 후 2014년 준공되는 삼척 그린파워 발전소에 하루 200t 규모의 상업용 개미산 제조공정을 설치할 계획이다.

동서발전, 30%는 무조건 고졸 채용



한국동서발전이 올해부터 신입사원을 뽑을 때 전체의 약 30%를 고졸 출신으로 채용한다. 고졸 학력자를 매년 일정 비율로 별도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동서발전은 발전소 증설 계획에 따라 올해 정원을 60명 늘리겠다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동서발전은 채용 계획이 승인되면 올 하반기 18~20명의 고졸자를 뽑겠다고 지난달 4일 밝혔다. 채용 시 학력에 따른 차별은 금지돼 있다. 그런데도 공기업 자회사가 학력별로 별도 채용기로 한 것은 고졸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동서발전은 일단 올 하반기 전국의 마이스터고 3학년 재학생 가운데 전기·전자·에너지·기계·통신 분야를 전공한 학생을 선발하기로 했다.

“전력설비 신기술 공유로 정비능력 향상시킨다!”



- 한전KPS, '제3회 전력설비 기술 컨퍼런스' 개최

한전KPS가 전력제어 및 전기설비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력설비 관련 신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정비능력을 향상시키고, 혁신마인드 변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한전KPS는 지난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용인 한화콘도에서 본사를 비롯한 전국 사업소의 전력제어 및 전기설비분야 담당자 95명이 모인 가운데 '제3회 전력설비 기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전력전자, 계통제어 세션과 전기기기, 절연진단 세션 등 두 가지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전력연구원 이주현 책임연구원 등 10명의 강사들로부터 스마트그리드 적용 전력기기 동향, 태양광 인버터 기술기준 및 평가기술, IEC 61850 기술기준, 고정자 권선 설계/제작, 전력용 변압기 ON-LINE 진단기술, 발전기 정비사례 등에 대한 강의를 이어졌다.

한전KDN, 미 최대 태양광 발전소 공사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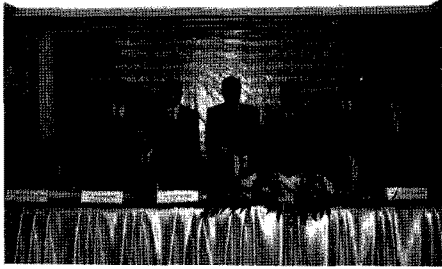


미국 최대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서 한전KDN, 케이앤컴퍼니 컨소시엄이 각각 2억 달러와 1억6000만 달러의 물량을 따냈다.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산업에서 후발 주자인 한국이 각각 다른 기술로 무장한 대표선수들을 제치고 메이저 무대인 미국 진출에 성공한 것이다. 총 49억 달러 규모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미국 그린에너지업체 마티네에너지(회장 마이클 파노스)는 2일 우리나라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KDN과 케이앤컴퍼니가 주도하는 컨소시엄 등 2개 컨소시엄을 추가 사업자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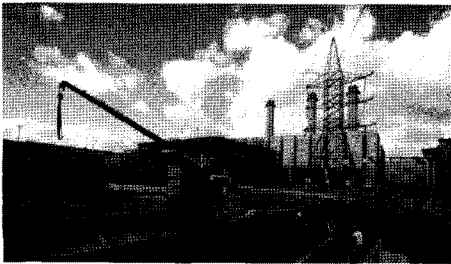
SK건설, 라오스 수력발전사업 MOU

SK건설은 지난달 16일 한국서부발전 및 태국 발전회사인 라차부리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태국전력공사와 라오스 세남노이 수력발전 전력판매 가격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세남노이 수력발전사업은 라오스 남부 메콩강 지류에 사업비 약 9억 달러를 투자해 390MW 용량의 유역변경식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생산된 전력은 태국전력공사를 통해 약 27년 간 태국에 판매될 계획이다. SK건설은 발전소 시공을, 한국서부발전은 운전 및 정비를 담당하게 된다.

대우건설, 블루오션 아프리카서 잇단 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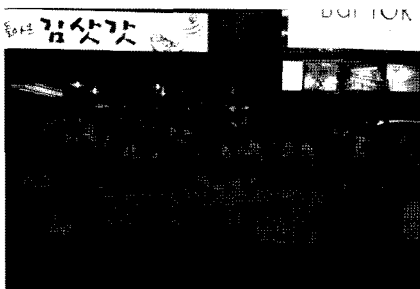
대우건설이 아프리카에서 속속 '수주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

외교 마찰을 빚고 있는 리비아에서 5100억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를 수주한 데 이어, 모로코에서도 조만간 1조1000억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공사를 수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5일(현지 시간) 리비아 현지에서 리비아 국영전력청과 5116억 원 규모의 즈위티나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즈위티나 복합화력발전소는 총 공사금액 5116억 원(4억3800만 달러)로 리비아 제2의 도시 벵가지 남서쪽 140km 지점의 즈위티나 지역에 750MW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공사다. 이번 공사에서는 500MW 규모의 가스화력발전소에 250MW 규모의 스팀터빈 1기 및 배열회수시설 2기를 설치하게 되며, 2010년 11월에 착공하여 2013년 5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케이디파워, 행복충전 뮤지컬 관람행사 개최



케이디파워는 문화경영의 일환으로 지난달 20일 대학로에서 뮤지컬 “뮤직 인 마이 하트(Music in my heart)”를 단체 관람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복충전 문화관람행사”는 케이디파워의 임원진과 신입사원, 핵심인재 가족을 포함하여 총 9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앞으로도 문화경영을 선도하는 대표기업으로 직원복지에 중심을 둔 정책을 앞장서서 선도할 예정이다.

케이디파워는 매년 7회 이상 전 직원들이 참여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KEA